

# 민주 “무속인 천공 국정개입 의혹, 점입가경” 국조 촉구

###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속 의원 발언 이어져

### 김성환 “무속국가인지 구분 잘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역술인 천공의 용산 대통령 관저 답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했다. 고 물가와 고금리,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정부에 요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속인 천공의 국정개입 의혹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손바닥에 ‘왕(王)자가 써져 있을 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인지 무속국가인지 구분이 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천공의 국정 개입 사례를 차례로 나열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아직 잊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첨단 과학의 시대에 대한민국 국정이 무속에 휘둘러져야 되겠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등에 대한 국회 차원 철저한 검증

과 정자 국정조사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천공의 관저 답사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고발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신정훈 의원은 “관저 출입 CCTV 영상과 거론된 정부 인사들의 동선을 밝히고 해명하면 될 일을 덮어두고 고발부터 한 것”이라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반성은커녕 남 탓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에 떠넘기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으니 실수는 반복되고 참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천공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강득구 의원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때는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한다”며 “미국 닉슨 게이트를 봐도 국민과 의회에 거짓말한 대통령은 결국 탄핵됐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진실을 가려 모든 의혹

을 깨끗이 털어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고,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실이 아니라면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담당하게 국회 조사에 응하고, 국회는 천공 국정농단과 비선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난방비 폭탄” 등 공공요금 인상 대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난방비 폭탄에 윤 대통령은 중산 서민층까지 지원을 확대하라고 했는데 정부 여당 대책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며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인데도 정부는 각자 도생하라며 방관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과 한시적 요금 납부 유예,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자영업자 고통 분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농촌 난방비 전기료 폭탄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농업 현장에 대한 무리한 단속 이전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긴급 생계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출의 금리가 연 15.9%로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병욱 의원은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대한 금리가 연 15.9%라면 너무 가혹한 금리”라며 “대다수 차주가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에 대출 보증을 위한 지원금이 아닌 일시적 지원금인 기부금 형태로 운영한다면 무이자에 가까운 금리로 대출해 줘야 타당하다”며 “아무리 높아도 햇살론유스 금리인 3.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최이슬기자

## 이재명 “현장의 전세사기 피해 심각...예방책 노력”

### “사례 듣고 관계 기관 대책도 점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 현장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하다”며 예방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가능한 예방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와 피해 발생 이후라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입법할 수 있는 것은 입법을 해내고 정부와 협력해 정책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함께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주거비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며 “피해 사례를 듣고 관계 기관의 대책도 점검해보겠다”고 했다.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말 답답한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전세사기

를 당해도 전세금을 날리게 생겼는데 이 전세금을 다시 되찾을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라며 “모든 대책들이 다 이미 사고는 났고 이후에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짜여져 있어 부끄럽기도 하고 매우 답답하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배소현씨는 “10년이 넘도록 나라에서 대체 어떤 대책을 마련했길래 아직도 이런 전세 사기가 일어나고 있냐”며 “이 시점에도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심이 아니라 제발 여기서 좀 끝났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전세사기법 등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되기 위해선 현재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악성 임대인에 관한 명단 공개 등 전세사기 방지 위한 6개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거나 곧 제출될 예정인데 신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조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오유니기자

## 나경원, 김기현 오찬 회동 “많은 인식 공유”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잠행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이 7일 김기현 당대표 후보와 단독 오찬 회동을 한 뒤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이 사실상 김 후보 지지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모 음식점에서 김 후보와 단둘이 오찬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 내년 총선 승리다. 그 앞에 어떠한 사심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지금 당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균열 전당대회가 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다”면서도 “우리가 참 어렵게 세운 정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어떤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 당에 대한 애당심, 충심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20년 세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보수 우파 정당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

다”며 “앞으로 보수 우파 가치를 더 잘 실현해서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나 전 (원내)대표님과 많은 의견을 나누고 지문을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나 전 의원이 지지선언을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와 함께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며 “나 전 의원이 우리 당 애정, 윤석열 정부 성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공조할 일이 많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나 전 의원은 “김 후보와의 거듭된 만남으로 전당대회 역할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바뀐 것인가라 묻는 말에 “많은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 어려운 시기이고, 우리가 할 일이 많은 시기다. 총선 승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에 따르면 이번 오찬 회동은 김 후보가 나 전 의원과 약속을 잡은 뒤 당대표 후보 캠프 측과 의원실에 알리지 않고 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환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